

지난해 강수량 줄며 저수지 물 말랐다

전년대비 80% 수준… 10곳 평균저수율 20%대 ‘바닥’
서부권 월동채소 물주기 한창이지만… 동부 더 심각

지난해 제주에 내린 강수량이 평년 대비 80% 수준에 그친 데다, 최근 이렇다 할 비날씨가 없어 도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늘이나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제주 서부지역에서는 최근 밭에 물주기가 한창으로,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공사 농촌융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주에서 관리 중인 저수지 10곳(제주시 8·서귀포시 2)의 평균 저수율은 26.4%에 그쳤다. 특히 제주시의 저수율은 15.4%에 불과해 지난해 46.8%와 평년 56.4%에 비해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1868곳의 평균 저수율이 78.2%로 평년 73.4%를 웃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지역별 저수지 저수율은 경기(97곳) 92.3%, 강원(76곳) 88.0%, 충북(138곳) 85.7%, 충남(189곳) 91.2%, 전북(203곳) 66.3%, 전남(505곳) 72.3%, 경북(333곳) 79.0%, 경남(317곳) 71.8% 등이다.

제주지역 저수지 10곳은 381만

7000t 규모의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저수량은 이날 기준 100만6000t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저수지의 저수율은 0.7%에 불과하고, 월동채소 재배가 많은 서부지역의 광령저수지의 저수율도 31.0%로 평년 58.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부지역인 제주시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강희만기자

구좌읍 송당저수지와 조천읍 함덕저수지의 저수율은 0%대로 그야말로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의 저수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앞으로 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최근 강수량이 적어 서부지역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밭에는 스프링클러가 연일 돌아가며 물주기가 한창이다. 제주서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334.93 가뭄판단지수 kpa 생략)와 서귀포시 대정읍 상대리

(200.40), 제주동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182.65)와 서귀포시 성산을 삼달리(207.08)가 초기 가뭄 상태다. 가뭄정보는 20cm 깊이의 토양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kpa가 100 이상이면 초기 가뭄, 500이 넘으면 극심 가뭄으로 판단한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연평균기온은 17.3℃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연강수량은 1350.8mm로 평년 대비 79.8%에 불과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팝업스토어를 찾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쿠오카 직항 재개… 관광객 유치 본격

현지서 제주 팝업스토어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 재개를 시작으로 일본 관광지 방문객 유치를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22일 일본 후쿠오카현 텐진 라이온 광장에서 ‘the Jeju 포시즌 in 후쿠오카’ 팝업스토어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 재개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후쿠오카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의 사계절과 감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주 산 동백차, 감귤 디저트, 교복 포토존, 체험 키트 등 콘텐츠가 다채롭게 구성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영훈 제주도 지사는 일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감성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관광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하원테크노캠퍼스 연결 하원북로 확장 추진

서귀포시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원마을과 옛 탐라대 입구까지 하원북로 확장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확장구간은 하원마을(일주도로)에서 옛 탐라대학교입구 교차로까지 하원북로 3.8km로 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지 조성 추진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마을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30만2901㎡ 규모의 산업단지로 ‘연구·제조·유통’이 결합된 우주산업 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4년 6월에 기화발전특구, 2025년 12월에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위영석기자 yswit968@ihalla.com

추자도수협, 저온 위판장 조성 국비 확보

30억원… 2028년까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수협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산지 수산물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자도수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 60억원을 들여 산지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안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2024년 제주시수협·한림수협, 2025년 모슬포수협·서귀포수협에 이어 올해 추자도수협까지 총 5개 수협이 선정되며 누적 국비 182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지역별 산지 위판장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소범기자

장애인 복지 사업 수행 기관 공모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이번 공모는 총 5억원 규모로 장애인복지 증진과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사회참여·직업훈련 등 복지 사업에 4억원이 편성됐

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건강증진 사업에는 1억원이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장애인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이며 사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은 사업 성격에 따라 50~90% 범위에서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과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맵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가입문의 064)758-006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다인산업(주)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